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청파산악회에서 24일(토) 용마산과 아차산으로 산행을 갑니다. 당일 오전 10시 30분 광나루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축구경기가 25일 오후 3시부터 한강 이촌구장에서 열립니다.

올해에는 고난주간이 4월 첫째 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4월2~6일) 저녁 7시 30분에 고난주간기도회로 모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기재된 실천사항을 실천합니다.

식 당 봉 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림 한양미 유주연 김필순 김훈동
 3/25식 당 봉 사 : 찬양대
 오늘설거지봉사 : 이국노 김민화 조선환 강인숙
 다음 주 설거지 : 조순덕 이준하 양상철 박재란
 떡과 커피 대접 : 김태경 박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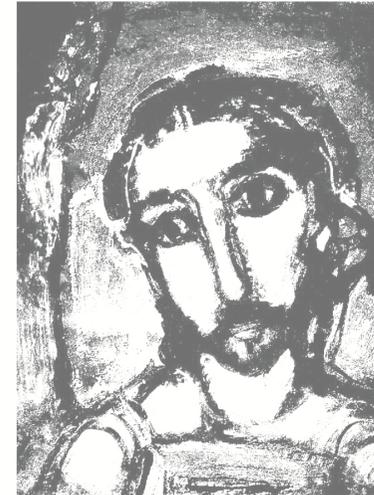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이 가져다주는 거세고 반복되는 자극에 갑각류처럼 굳어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께서 봄의 새싹에게 허락하신 부드러운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봄의 나라를 믿고 추위와 시련 가득한 세상을 향해 부드러운 손과 발을 내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연일 바람이 몰아치는 밤바다처럼 크게 요동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요동치는 사회 속에서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 빠진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광포하고도 어두운 기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잠잠하라’ 소리쳐 주십시오. 그 음성 인하여 참된 평화가 찾아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순배 김경연 김근종 정옥영 김남홍 김용길 최영혜 김유경 김재흥
 최희영 김준호 박해자 김현주 노준우 민병배 최문현 박석희 김조항
 박숙영 박창운 허정운 배재경 이수정 백묘현 백성래 서수진 송동준
 김진경 안길상 이형숙 안보혜 윤수진 이계선 이소수 이봉배 이성범
 권현숙 이윤석 박안수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임고운 임주빈 최현욱
 장대호 한숙경 장동훈 정은선 정연희 조병익 조정연 조병주 주경진
 이운정 최윤희 최 중 한기택 한상경 홍성식 이유리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

감사헌금:

권미숙 김남홍 선우영 박숙영 윤수진 이애리 이유일 김미희 이종배
 이주영 오재영 이진영 한양미 이춘재 정우선 조현권 박아영 주성수
 김정아 주신원 하현철 최성애 홍성식 이유리 황현성 교회학교 무명

생일감사헌금:

조항미

녹색꿈헌금:

김남홍 선우영 김용길 최영혜 김정훈 이진영 윤정덕 구성실 정선희
 최종원 한기택 무명

장혜숙	백혜숙	백혜숙	정두리
노순옥	박성희	박미영	배부례
최희영	최경미	서원금	이소순
장영숙	신영신	박경선	이명희
정경례	진정숙	진정숙	정경례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김순복
박호선	허정운	박효선	방극속
이순정	김금순	이봉욱	오복순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김오현	정현주
정영선	서정순	김희영	정영선
박혜경	조항미	최영혜	백성래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

떼이야르 드 샤르댕

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 사실이 자꾸 마음 쓰일 때
 움츠러들거나
 갑자기 충격적인 병이 찾아왔을 때,
 아프거나 연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는 괴로운 순간에,
 자신을 주체할 힘을 잃어
 저를 지으신 알 수 없는 위대한 분의 손에
 완전히 맡겨질 때,

오, 하느님!
 그 모든 어둠의 순간에,
 존재의 울을 풀어헤치는 분이 당신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 존재의 정수를 꿰뚫어
 당신 안에 온전히 저를 품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오지은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행에 따라 복과 재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탐욕을 자극하는 소리를 따라 살지 말고 우리를 빛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사십시오.

아멘. 주님과 약속을 잊고 자만에 빠져 저 하고픈 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를 빛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나는 시편이다 / 손성현 전도사 기도 : 박혜경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공동기도	조지연 선생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오자영 집사

3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조문규 김금순 진정숙 박시내
	헌금위원	김인걸 박효선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싶은 근원적 물음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마태13:44-52)

시골로 이사해서 텃밭 농사를 하고 있는 친지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야겠다. 어느 면으로 보나 전형적인 서울내기인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살림의 일부를 정리해 시골로 내려가는 걸 본 주위의 반응은, 보나마나 땅투기가 목적일 거라는, 다분히 냉소적이고 속물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게 아닌란 것은 곧 드러났다. 그는 학교 때문에 서울에 남겨놓았던 아이들까지 전학을 시켰고, 부부가 함께 갖고 있던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만 시골서 통근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겼다. 원래의 직장보다 혹사를 덜 당하는 대신 보수도 낮고 낫도 별로 없는 직장이라고 했다. 일부 남겨놓았던 서울 살림을 이렇게 완전히 정리하기까지 아이들의 동의를 얻는 데도 일 년 가까이 걸렸더니 남이 그들의 처사를 쉽게 이해할 리 만무였다.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동기를 그들은 너무도 단순하게 말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였다. 누구나 사노라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발견하긴 쉽지 않다.

그들이 그걸 발견한 소수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 실행 과정은 누가 보아도 여간 황당한 게 아니었다. 그들의 학벌과 능력에 합당한 직장보다 우아하고 고상한 사교 생활과 넉넉한 보수와 좋은 학군에 위치한 안락한 아파트와 그리고 도시 생활에 따르는 온갖 편의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거라곤 고작 맑은 공기 정도였으니까.

사람이 호강에 겨우면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긴 해도 그들이 고생을 사기 위해 잃은 건 너무도 막대했다. 그들이 그때까지 이룩하고 소유한

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그들을 미쳤다고도 하고, 곧 후회할 테니 두고 보자고 버르기도 했다.

어쩌면 나도 그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회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힘들다는 소리는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후회하는 것하고는 달랐다. 그들에겐 정신적으로 충족된 사람 특유의 근원적인 명량함이 있었다.

어쩌면 저렇게 밝고 맑을 수가 있을까? 은근히 샘이 나면서도 어느 틈에 그들의 명량함이 나에게도 어느 만큼은 옮겨 붙은 것처럼 느끼곤 한다. 그 집 사는 걸 보고 오면 며칠은 괜히 기쁘고 살맛이 난다. 물론 갈 때마다 무공해 채소를 얻어 오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 진짜 매력은 그 집 특유의 근원적 기쁨의 전염성에 있었다.

내가 자꾸만 그 집에 가고 싶은 까닭이 무공해 채소 때문만이 아니듯이 그들도 단지 맑은 공기만을 위해 그 모든 기득권을 희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한 것 이상의 것을 얻었다고 해서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 세상엔 농사만 필요한 것도 아니거니와 사람마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는 창조의 신비 같은 것이어서 생긴 것이 다른 것만치나 제각각일 테니 말이다. 지지리도 고생만 하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그들이 왜 그렇게 부러운지 우리는 그까짓 손바닥만 한 밭에 보물이라도 묻혀 있더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질투심을 대신하고 있다.